

생생 기고문 강도만난 자들의 이웃들, -난민 현황 -

-차례 -

김종훈, **모라비안** 난민케어네트워크

난민의 발생 이유

최근 이동 상황 및 결과

난민 사역의 형태

어려움과 필요들

기도제목

들어가며



UN 사무국 앞에서 한 아프칸 가정을 만났다. 이란에서 터키로 넘어 오기 위해서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 넘어왔다. 그러나 터키 국경에서 이 브로커들이 알선한 강도들이 돈을 물론이고 신발과 옷도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했다. 이들은 첫 번째는 탈레반 같은 강도에 의해서 조국을 잃었고 다시 국경을 넘어 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강도를 만난 난민들이다. 마태복음의 많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리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오늘날 난민들에게는 의미가 절실하다. 한 나라의 인구만큼이나 되는 새로운 집단들이 생겼다. 이들은 조국이 없다. 땅도 집도 없다. 소망도 미래도 없다. 친구도 이웃도 없다. 예수님이 이들과 같은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태복음이 새롭게 보인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쉬게 하시는 위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8가지 축복의 메세지, 고무보트를 타고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에게 거친 바다를 잠잠케하는 예수님의 손길이 새삼 느껴진다.

최근에 일어난 파리의 무자비한 연쇄 테러 사건에는 계획된 목표가 있다. 유럽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유럽에 진입한 난민들을 유럽인들이 혐오하도록 만드는데 있다. 강도 만나서 도움을 찾아 유럽으로 온 이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외톨이가 되고 결국 유럽의 원수가 되어서 IS의 잠재 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는 이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

1. 난민의 발생 이유

최근 10년 동안 30%의 난민이 추가로 발생되어 지금은 6천만명의 난민이 지구상에 있다. 매 3분마다 새로운 난민이 발생하고 세계 인구의 120명 중에 한명은 난민이다. 최근의 난민은 주로 이슬람 지역이며 내전에 의한 생명의 위협과 이슬람원리주의에 의한 폭력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조국을 탈출하고 있다. 시리아,아프칸,이라크 국가들이 대표적인 난민 국가들이다. 그리고 교회도 난민을

통한 창의적 선교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10여개의 핵심 난민 국가들은 철장같이 문을 닫아 왔기에 사역자들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고 사역의 열매가 적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우리의 앞 마당으로 걸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열매도 열리고 있다.

1) 아프칸 난민

4년전까지만 해도 가장 난민 숫자가 많았다. 약 600만 명에 정도이며 30년동안의 오랜 전쟁으로 난민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러시아와의 전쟁, 종족간 내전, 2012의 미국과의 전쟁, 탈레반의 억압이 주 이유이다. 국경과 맞닿은 파키스탄에 200만명, 이란에 250만명(최고치 일 경우), 터키와 주변국에 일부가 흩어져 있다. 최근에는 미국 철수와 탈레반의 득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이란과 파키스탄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2) 시리아난민

4년전의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1160만명이 난민이되었다. 터키에 250만명, 레바논 100만, 요르단에 80만명이 머물고 있다. 그 외 다양한 국가들에도 유입되었다. 시리아 내의 실향민도 700만명에 이른다.



3)이라크 난민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후부터 치안이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60% 시아파와 40% 수니파의 종파 갈등으로 서로 테러를 일삼고 있다. 이라크에서 양카라로 피난 온 카톨릭 신자인 OO 가족은 무슬림에 의해서 자신의 금은방이 강탈당하고 협박을 당해서 도망왔다고 한다. 최근에는 IS가 이라크 많은 부분을 장악하면서 야지드인(소수 종교)들을 집단 살해했다. 살아 남은 야지드인들이 터키로 많이 유입되었다. 4%에 이른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이라크를 빠져 나갔다. 터키에 수십만명의 이라크 난민들이 있다. 이들은 시리아인들보다 더 온순하고 복음에도 관심이 많다.

4)이란 난민

이란은 시아파 종교 지도자의 독재 정치로 매우 안정적이다. 근 40년 동안 이런 신정 정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 이전에는 이란은 터키만큼 자유로운 나라였다. 사람들은 옛 자유를 그리워하며 지금 정권을 매우 싫어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인 이슬람도 거부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이나 기독교를 전파한 이유로 체포당하고 핍박당해서 터키로 탈출하고 있다. 또는 젊은이들이 삶의 자유를 찾아서 터키로 넘어오고 있다. 터키로 넘어온 이란인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란인 교회에 접촉되고 신앙을 얻는 경우가 많다. 터



그림 3 터키의 한 이란 교회에서 공동세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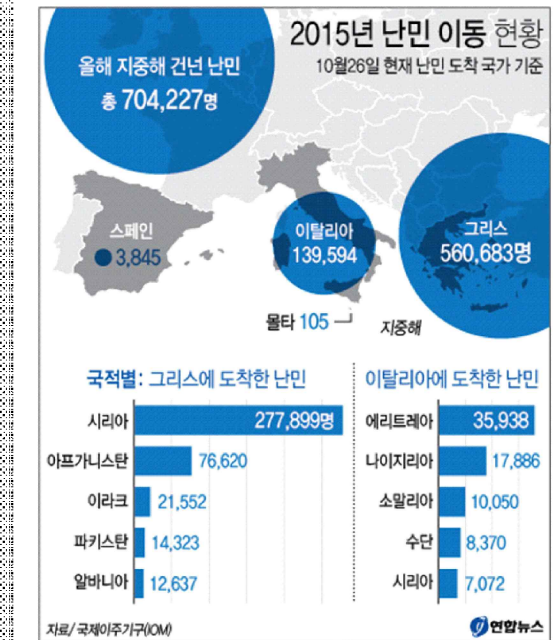
기로 넘어오는 이란 난민은 년 수만명에 이른다.

2. 최근 난민들의 이동과 상황

각 국가에 거주하던 난민들이 갑자기 이동을 시작했다. 원래 난민들은 처음 인접한 국가에 도착하면 임시 난민증을 받고 캠프나 도시에서 일반인처럼 살게 된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의 난민인증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이 되면 난민을 받아주는 미주 등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난민들이 여러 나라로 이동할 필요는 없다.

올 5월부터 난민들의 갑작스런 이동이 생겼다. 첫 번째 이유는 레바논, 터키, 요르단, 이란, 파키스탄 등 난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국가에서 난민증 프로세스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시리아 난민들이 예상 외로 너무 많아져서 다른 국적의 난민들의 프로세스를 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아프칸인들에 대해서는 UNHCR (유엔인권고등법원, 유엔난민총괄기구)에서 난민인증을 못해주니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다급해진 차에 유럽(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받아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다. 따라서 각국의 난민들이 그리스를 거쳐서 북유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약 5개월에 걸쳐 유럽으로 입국한 난민을 70만명으로 보고 있다.

80% 이상이 터키의 에게해를 고무 보트로 이동하여 그리스의 3개의 섬에 도착한 후 유럽으로 북상했다. 나머지는 북아프리카의 난민들로서 이탈리아 해변에 도착하여 북유럽으로 북상했다. 지금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위험하고 경찰의 단속이 심해져서 다소 바다를 건너는 난민 숫자가 줄긴 했지만 최대 하루 7천명이 에게해를 건넌 적이 있다.



필자가 실상을 파악코자 지난 10월에 직접 보드룸(터키 에게해 해변)과 반대편에 있는 Kos섬(사도 바울이 하루 묵었던 곳)을 방문하였다. 죽음의 바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에 수십명이 고무 보트를 타고 건너가다 배가 전복되어 일부는 구조되고 일부는 익사하기도 했다.

예상외의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유럽으로 모여들자 헝가리 등은 일찍부터 국경을 차단했고, 일부 국가들도 국경을 차단하고 있다. 독일도 국내의 반대 세력에 부딪혀 더 이상 무제한으로 난민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독일이나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은 난민 캠프에서 주거와 식사를 공급받으면서 언어를 배우고 난민 프로세스를 받게 된다. 받아들여지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 자격을 얻게 되고, 불합격되면 다시 고국이나 출발했던 나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 유랑하고 있는 난민도 수십만으로 보인다. 미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으로 가기 전에 국경을 통과하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기다리거나 아예 국경을 폐쇄하여 중간에 머물

고 있는 난민들이다. 이들은 미래도 없고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난민사역의 형태

- 1) UNHCR 에서는 긴급 구호가 필요한 난민들에게 텐트 설치와 음식 제공을 하고 있다. 주로 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 2) 어린이 학교 사역: 터키 가지안텝의 시리아 어린이 학교, 터키 하야트의 시리아 어린이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허가의 문제 등이 남아 있다.
- 3) 난민등록을 위해 방문한 난민들과 이동 중인 난민들 ; 계란, 음식, 옷 등을 나누며 동시에 신앙 성경을 보급(터키 앙카라와 그리스 아테네)
- 4) 교회에서 주 1회 또는 월 1회 식료품 보급과 차 공급하고 전도(앙카라 국제교회, 앙카라 터키 교회)
- 5) 난민전도와 난민 교회 개척: 터키전역(이란인 교회는 60여개 교회 이상)과 그리스 등 이란 및 아프리카 난민 대상, 아랍난민 대상 교회 개척은 터키 가지안테페와 알로바 등 소수
- 6) 난민신자 대상으로 선교훈련 : 앙카라 등



그림 5 그리스 KOS 섬, 터키에서 넘어온 난민들

4. 어려움과 필요들

- 1) 난민들도 최소한의 여비와 먹을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음. 그리고 UN에서 잠자리와 먹거리는 기본적으로 제공
- 2) 난민들에게 공포와 심리적인 충격이 있음, 이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필요함.
- 3) 난민의 30%는 어린이들임, 이들이 심리적인 외상을 입지 않도록 학교운영과 위로해 주는 손길 필요
- 4) 난민들이 많이 모이는 길목과 기관 등에 사랑과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함.
1차 집결지인 앙카라에 매일 전도자가 필요함. 2차 집결지인 터키의 3곳의 해변가와 그리스의 3곳의 섬,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유럽의 주요 난민들이 통과하는 지역들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이 더 많이 필요함.
- 5) 최종국가인 유럽국가들에 정착할 때 1년 안에 이들이 지역교회 공동체의 영적 육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는 역할이 필요함. 즉 지역교회안에 이란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예배모임 공동체가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슬람화되고 결국 유럽시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됨.

*매주 앙카라 난민 사무국 앞에서 전도할 사람과 이들에게 음식을 재공할 재정 필요(하루에 30불)

*추운 밤에 공원에서 잠을 자는 난민가족들을 센터로 이동시켜서 하룻밤을 재워 줄수 있도록 9인승 중고 차량 필요

*일부 사진은 보안을 부탁드립니다. kambisjh@gmail.com